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❸

음식을 받는 일
〈供養〉

"수고한 모든 이들에 감사하라"

물한방울도 나에게 오는 까닭이 있어

음식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어디가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보니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듯하다.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하고,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어야 한다. 육체에다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사에 이르고 급기야 사경을 헤매게 된다. 음식을 먹는것은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쉬임없이 일어나야 한다.

불교에서 쓰는 말 가운데 공양(供養)이란 말을 자주 쓰게 된다. 진지 드셨읍니까. 밥을 먹으라고 하는 말보다 상하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언어를 사용한다. 공양하셨느냐. 공양하세요. 이처럼 어감상 공손히 높세워진 말이 어디 있겠는가. 불교의 평등성 화합성이 함초로히 자리한 말씀이다.

근자에 나온 통일법요집에도 공양에 대한 예경문이 나와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공양을 받습니다.

쌀한톨에 88번 손길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받는것은 그 음식이 나에게까지 오게 된 연유를 알아야 한다. 그저 물건이 건너 오는것이 아니다. 모든것은 나에게까지 오게 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의 역사를 찾아 살피게 되면 이 곡식과 음식을 만들어 낸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하게 될것이다. 한 여름의 땀비를 적시면서 농사짓는 농부들의 애간장이 그 낟알 한알속에 함초로히 도사리고 있는것이다.

쌀 한 톨을 건지는데 88번의 손질이 간다고 쌀 미(未)가 八十八이라고 파자하는 옛 사람들의 슬기가 돋보인다. 정말 그토록 무한한 공덕이 스며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기름지고 알지고 맛있지 않는가. 이와같은 연유와 까닭을 깊이 성찰하면서 두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씨로써 이 음식을 받기가 부끄럽다. 얼마나 감격스런 감사의 표현인가. 이와 같은 감사를 할 줄 알면 이 사람은 음식을 들어도 무방할 것이다. 아니 이 모든 음식은 마땅히 내가 먹어도 한점의 부끄러움도 미안할 필요가 없다고 우악스레 먹는 사람은 좀 못난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일것이다.

나의 덕행은 얼마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토록 긴한 음식을 제공하여 주니 감사하고 고맙다고하는 마음이 앞서 나와야만 사람의 덕행이다. 덕행이란 자기 능력과 공덕에 비하여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나보다 남의 노력과 공덕을 기리는 마음이 바로 덕행인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서 음식을 대하여야 한다. 하루 세끼 끼니를 대할 때마다 집에서 먹던 음식점에서 먹던간에 요리하는 담사자만이 아니라 곡식을 거두어들인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제 자신에게는 일체의 욕망을 버리고 굶주림만 모면하는 마음, 아귀처럼 제 배만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식충이가 되지 말고 조금만 취하여야 한다.

탐애 버리면 건강

음식은 약식이 되어야 한다. 과식이나 과음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가. 절대적으로 적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육신을 지탱하고 약인것이다. 보약이라고 하여 과용하면 그 몸을 상하게 한다. 보약도 적량을 계속적으로 복용하면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진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도업을 성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축생업이나 아귀업을 받아나온것이 아니라면 보리심을 발양하여 보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보살은 남을 이롭게 하는 무한한 광명이다. 어둡고 막힌 곳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밝게 뚫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 공간이 보리도량이다. 이 성취의 길을 바르게 갈려면 공양에다른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남의 생명을 자비롭게 받들어 모실줄 알고 제 살림을 알뜰히 살필줄 알아야 한다. 남과 내가 둘인 듯 하지만 궁극의 세계에서는 바로 하나이다.

거저 된 것은 아무 없다. 거기에는 언제나 인과가 있는것이다. 남알, 물한방울도 나에게 오는 까닭이 연기되어 있는것이다. 하루 삶에 대하여 공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받고 공양 받쳐드리면 일체중생이 보리보약을 들고 성불하는 날도 멀지 아니할 것이다. 저 중생을 위하여 공양보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산문밖의 行脚

시인 박희진

"시인답게 사는 게 평생의 화두"

임연태 기자

북한산의 단풍이 붉어 시인의 창문도 진홍의 축제를 하고 있었다. 창을 열면 시인의 방은 어느새 북한산의 가을빛으로 가득하다.

백발이 듬성듬성 시인의 연륜을 얘기해 주는데 그의 삶은 아직 한여름의 푸른 숲과도 같았다. 북한산을 바라보는 능선에 지어진 아담한 빌라의 3층에 10년째 살고 있다는 박희진 시인 그의 문 앞에는 「好日堂」이란 당호가 붙어 있다.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란 글귀를 줄여 붙인 이름이다.

당호가 얘기 하듯 박희진 시인의 삶은 언제나 즐겁다.

"내 평생의 화두는 시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시인답게 사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시에 미쳐 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시인은 언제나 즐겁다. 즐거운 마음, 기쁜 삶이 아니고야 어떻게 시를 쓰는 사람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시와 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를 것이 없지요. 시를 쓰는 것은 언어에 몰입해 언어로서 인간의 정신을 순화시켜 다시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선수행을 하는 것은 생각에 몰입해 생각의 차원마저 넘어서는 것이지만 결국 인간에게(혹은 자신에게) 기쁨, 더할나위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란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니까요.

박시인은 시를 쓴다는 방법과 선을 한다는 방법은 같은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이기에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한다. "수행을 잘해서 보살이 되고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나 시를 잘써서 「시인보살」이 되고 「시인부처」가 되는 것은 같다"는 얘기다.

> *"수행을 잘해서 보살이 되고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나 시를 잘써서 「시인보살」이 되고 「시인부처」가 되는 것은 같습니다. 시쓰는 일은 인간의 정신을 순화하는 구도행이니까요"*

◇ '시인다운 삶' 살기를 화두로 삼고 시쓰기에 몰두하고있는 박희진 시인.

잠잘때는 방하착 깨어서는 초발심

시인의 설명은 다시 구체적으로 이어 진다.

"시는 무엇으로 씁니까. 언어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언어는 무엇입니까 사회학자들이야 사회적 계약이라고 말하겠지만 시인에 있어 언어는 인간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정신으로 인간의 정신을 순화시키는 작업이 시를 쓰는 일인 것입니다."

시인의 창작작업은 인간의 정신을 맑고 깨끗한 경지로 이끌어 가는 구도행이란 설명이다. 박시인이 말하는 「시인보살」, 「시인부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될 만한 설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시인 자신의 삶이다.

"시인의 삶은 시인다와야 합니다. 시인의 생활은 시가되야 합니다. 시인다운 삶은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속의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자와 시인이 다를 것이 없다는 논리를 뒷받침 해 주는 것이겠군요."

박시인의 삶은 언제나 시인답다. 그는 시인다운 시인이고자 「잠잘때는 방하착 깨어서는 초발심」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시어들의 축제로 그는 시를 써 내려간다. 1행시도 쓰고 4행시도 쓴다. 더러는 수백행의 장시도 써낸다. 시인의 표현대로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퍼내는 것이다.

"오후가 되면 육체의 신진대사를 위해 북한산의 숲으로 들어 갑니다. 숲속에서는 나 자신도 숲이 되고자 합니다. 노을지는 시간에 돌아와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찍 잠을 잡니다. 다시 꿈틀대는 시어들의 몸부림으로 문득문득 눈을 뜨고 시를 쓰기도 합니다."

박시인의 하루는 단조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시인다운 시인이고자 꿈틀대는 영혼은 단조롭지 못하다. 옛 불부터 박시인은 사할기행에 몰두해 있다. "사할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정결한 인간의 정신 그리고 과거 · 현재 · 미래의 대화가 있는 곳입니다."박시인은 사할 기행에서 돌아오면 그 사할을 시로 노래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1행시는 직관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것은 박시인이 4행시로 쓴 1행시에 대한 정의의 일부분이다. "직관적 상상력이란 선수행을 통한 사물의 실체를 바로보는 눈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를 쓰는 작업 자체가 선수행의 과정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박시인의 눈은 어제나 사물의 이면과 이면마저 넘어 선 곳에 있는 진리를 파악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박시인을 시인이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생활과 시작업의 과정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그의 독특한 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눈으로 그는 연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순백의 연꽃은 순백의 극락, 진홍의 연꽃은 진홍의 극락」이라고.

이를테면 시인이 보는 연꽃의 세계가 왜 아름다운 극락인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1955년에 등단, 40년간 시를 써오며 14권의 시집을 낸 박시인의 서가에는 또 4권의 시집이 준비되고 있다. 사할을 다니며 쓴시와 환경파괴를 염려하는 시 그리고 시와 선의 경지를 함일시킨 '마음의 시'들이다. 그중 1행시 한개절이 기자의 눈을 번쩍 뜨게 한다.

「폭포를 오래보고 있노라면 폭포 떨어지는 굉음이 안들린다.」

부산 FM 89.9MHz | 서울 FM 101.9MHz | 광주 FM 89.7MHz

불교방송을 부산, 경남지역과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불법홍포와 지방문화 창달의 새 지평을 열어갈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이 곧 탄생됩니다.

부산 · 경남지역과 광주 · 전남지역 일부를 가청권으로 한 불교부산방송, 불교광주방송은 정부로부터 95년 4월 10일까지 준공을 조건으로 설립을 허가 받았으나, 본사는 **늦어도 95년 2월까지 개국을 목표로** 방송시설공사와 기자재 발주 등 모든 업무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사는 부산 · 경남지역, 광주 · 전남지역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의 뜻을 모아 지방국을 여법하게 설립하여, **불자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방송**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 설립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주 파 수 :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 시 험 방 송 : 95년 1월 8일(성도절)
* 개국예정일 : **95년 2월 1일**
* 사 옥 : ·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833-13 보생빌딩 10, 11층(부산)
  · 광주직할시 북구임동 78-2 대수 빌딩 2층(광주)
* 전 화 : · 051-644-5114(부산) · 062-528-6261(광주)

○ 불교부산방송 설립성금 접수

은행명	구좌번호	지점명	예금주
국민은행	129-01-0000-650	범일동출장소	불교방송
농협중앙회	905-17-001278	부산진 지점	〃
동남은행	001-04-0130-761	본 점	〃
부산은행	020-13-000218-6	본 점	〃
외환은행	050-13-25048-2	범일동 지점	〃
한일은행	041-173791-13-201	범일동 지점	〃

○ 불교광주방송 설립성금 접수

은행명	구좌번호	지점명	예금주
광주은행	013-127-004081	광주 지점	불교광주방송
농협중앙회	616-01-076513	광주 지점	〃
중소기업은행	189-039430-01-011	중부 지점	〃

BBS 불교방송

경력 ·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지역	모집부문	구분	인원	응시자격
서울	기자직	신입	0명	신입사원 • 전국대학 졸업이상자 또는 졸업예정자 남자 1966년 1월 이후 출생자 여자 1969년 1월 이후 출생자 경력사원 • 전국대학 졸업이상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자 남자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 여자 1963년 1월 이후 출생자 공통 • 병역필 및 면제자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자 • 기술직은 전자, 전기, 통신전공자 단)무선설비 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부산	방송직(PD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신입 및 경력	00명	
광주	방송직(PD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신입 및 경력	00명	

2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불교학 제한 논문 독일어) 3차 면접

3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소정양식) / 1부 2) 병적증 사본 / 2매
3) 자격증 사본(방송기술직중 소지자에 한함) 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4 원서교부 일시 및 접수
· 일 시 1994년 11월 1일 ~ 11월 9일(수)
· 교부 및 접수
본 사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대보 B/D 15F(T 02-705-5224-6)
불교부산방송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3-13보생 B/D 10 11F(T 051-644-5114)
불교광주방송 광주직할시 북구임동 78-2대수 B/D 2F(T 062-528-6261)

5 기타 사항 1)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